

契丹과 高麗의 佛教文獻 交流

A Study on Exchange of Buddhist Literature between the Kitan and Goryeo

남 권 희 (Nam, Kwon-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3 『龍龕手鏡』 |
| 2. 契丹 佛教文化 流入 | 5. 敎藏類의 交流와 義天의 章疏 記錄 |
| 3. 契丹의 出版文化 | 5.1 敎藏類 |
| 3.1 契丹의 印刷文化와 刊行 佛書 | 5.2 義天 大覺國師와 章疏 交流 記錄 |
| 3.2 契丹大藏經 | 6. 맺음말 |
| 4. 遼本 系統의 高麗本 | <참고문헌> |
| 4.1 大藏經 | |
| 4.2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 |

< 초 록 >

이 연구는 거란과 고려간의 초기 출판문화 교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불교 경전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거란의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고려로 전파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려 건국 초기에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과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11세기에 들어서부터 두 나라간의 문화·정치적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불경의 교류 역시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당시 거란은 정치·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불교문화에 있어 큰 성장을 이루어, 『龍龕手鏡』이나 각 종 ‘章疏’를 간행했으며 유명한 승려들도 많이 배출하였다. 이러한 거란의 불교문화 및 간행 서적의 교류를 통해 고려의 불교문화와 출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교류의 일면으로 모두 알다시피 대각국사 의천에 의한 章疏 편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뿐만 아니라 고려의 불교 서적들이 거란으로 전해져 거란 승려들에 의해 주석되어 배포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나라간 문화교류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그 시대 출판문화의 흐름과 경향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하였다.

要語: 契丹, 高麗, 佛教文化, 出版文化, 遼本, 大藏經, 敎藏

*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khnam@knu.ac.kr)

접수일: 2013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various aspect of culture exchange in early period of Yao and Goryeo. Especially the study focused in the exchange of Buddhist scriptures and tried to understand how the unique culture of Yao spreaded into Goryeo.

Between the Kitan and Goryeo they had not made a positive exchange in early time of foundation respectively because they didn't have any political, military or economical interest and needs in those days.

In the examination of records at that time, they began to exchange cultural and political interchange in 11th century including Buddhist scripture widely.

Moreover the Kitan had high growth of Buddhist culture as well as economics and politics, the country published lots of books like 'Yonggamsookyung' and Buddhist scripture. Also there were many famous Buddhist monk as well in the country.

Consequently these circumstances had direct influence on Goryeo Dynasty. As we all know, Daegak Guksa Uicheon in Goryeo also tried to publish many Buddhist scripture and commentary books passionately.

Besides, books of Goryeo were brought to the Kitan and they were explained and translated by the Kitan monk adversely.

Therefore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publishing culture and articl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ulture exchange between two coutury.

Key words: The Kitan, Goryeo, Buddist culture, Publication culture,
Book of Yao, The Tripitaka Koreana, Gyojang

1. 머리말

이 연구는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중국 북방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군사적인 강력한 통치체제 아래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였던 契丹의 文化(특히 불교와 출판)가 高麗에 유입되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그간 발견된 불교 경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거란과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중국 대륙의 복잡한 국제적 흐름 가운데 초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로간의 이익과 필요가 중요하지 않아 적극적인 교류가 없었다. 기록상으로 보면 외교적인 접촉은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하여 발해의 멸망 등 일련의 정세 중에서 거란은 동북아에서 영향권을 넓히는 측면으로, 고려는 거란의 군사, 정치 영향력을 의식해서 진행된 通交와 斷交의 과정이 평화와 전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11세기 전반 거란의 興宗과 고려의 德宗, 靖宗, 文宗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신이 오가고 후반에 들면서 大藏經을 보내는 등 문화면에서의 교류도 넓혀지게 되었다. 특히 거란에서 국론통일을 목적으로 발달한 불교는 사찰의 건립 등 제도와 함께 학문적인 수준도 향상되어 『龍龕手鏡』이나 각종의 ‘章疏’ 등 당시 동북아에서 중요한 저술과 학승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고려에까지 이어져 10세기말 大覺國師 義天에 의한 章疏 편찬에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불교 서적들이 거란으로 전해져 주석되어 배포되기도 하는 등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는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서적¹⁾ 및 불교문화 측면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거란 즉 遼의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을 살펴볼 때 당시의 불교문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大藏經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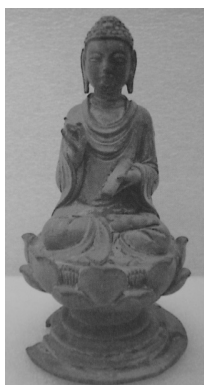
1) 고려와 거란간의 서적유통 측면에서는, 『遼史』 『道宗本紀』 1083년(大康 9) 11월 甲寅日條에 승려 善知에게 조서를 내려 ‘고려에서 진상한 불경을 교열하여 반포하라’는 기록이 있으며, 1113년(睿宗 8) 2월에는 요의 사신 耶律固 등이 『春秋釋例』와 『金華瀛洲集』을 요구하여 받아가기도 하였다(『高麗史』 卷13 世家 第13 睿宗 8年 2月 庚寅條).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방문화로 대표되는 遼代의 문화 중 불교를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를 기록과 발견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고려와 교류되었던 경전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2. 契丹 佛教文化 流入

거란과 불교문화의 교류 양상 중에는 대장경을 비롯한 경전 형태가 주를 이루지만 금동여래상, 석조물 등과 陀羅尼幢²⁾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

먼저 고려 작품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慶源郡 東原面 林壹洞 출토의 금동여래좌상을 들 수 있다. 이 여래상은 손에 ‘經卷’을 들고 있는 독특한 상으로서 한반도 북부 경계 지역에서 출토되었지만 그 특징으로 볼 때 고려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요대 금동여래입상에서 이와 같은 형식의 도상을 볼 수 있다.³⁾



<그림 1>

요, 금동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⁴⁾
함경북도 慶源郡 東原面 林壹洞 출토



<그림 2>

요, 동조여래입상
(요녕성박물관)⁵⁾

2) 大佛頂陀羅尼가 주류를 이루었다.

3) 정은우,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요의 영향,” 『고려와 북방문화』 (서울: 養士齋, 2010), 154.

이 시기에는 여러 유형의 불교유물이 알려져 있으나 문헌과 관련 있는 유물의 하나로 다라니당을 들 수 있다. 그중 요의 옛 상경성, 중경성, 남경 등의 여러 유적지나 유물에서 다라니 석당이 확인되어 이러한 당시의 유행은 唐代 이후 요대에서도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다라니석당은 8기 정도가 확인되는데, 현재 북한에는 3기의 다라니석당과 2기 정도의 파편이 전하며⁶⁾ 남아 있는 유물 중 1027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의 <城東里 陀羅尼石幢> 등에서 <佛頂尊勝陀羅尼>, <白傘蓋陀羅尼>, <大悲心陀羅尼>, <大隨求陀羅尼>, <大吉祥陀羅尼>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유행은 唐代 이후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였던 것으로, 요대에서의 유행은 여러 곳의 유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석당의 형식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은 <표 1>과 같아서,

<표 1> 국내 전존 석당 위치

城東里 陀羅尼石幢	평북 용천군 佛頂寺	大佛頂陀羅尼	1027년	2,380자
城東里 西門밖 陀羅尼石幢	평북 피현군	大佛頂陀羅尼		
廣平寺 陀羅尼幢	강원 평강 광평사	尊勝陀羅尼		
月光寺址 陀羅尼石刻	충북 제천 송계리	大佛頂呪		100여자
海州 陀羅尼石幢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공원	大佛頂陀羅尼		
陀羅尼 石碑	光州 林洞 十信寺址	佛頂尊勝陀羅尼	조선 초	

등에서 그 일부가 확인되며 시기적인 면에서도 石幢의 형식은 11-12세기에 주로 분포되어 요대의 유행시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양상을 보인다.

그 중 성동리의 석당은 佛頂寺라는 옛 절터의 것으로 현재 妙香山 普賢寺로 옮겨져 있으며 서문 밖 석당의 經文 내용은 大佛頂陀羅尼로 추정되고 있다. 완형이 아닌 것으로는 開城 선죽교 다리의 부재로 쓰인 묘각사터에 있는 다라니 석당의 일부와 平壤의 법수교의 부재에도 梵字가 쓰여진 것이 있어서 역시 석당으로

4) 정은우(2010), 154.

5) 정은우(2010), 155.

6) 진홍섭, “韓國의 眼象紋樣,” 『東洋學』 제4집(1974), 261-262.

추정된다.⁷⁾ 또 光州 십신사지의 梵字碑에도 <大佛頂尊勝陀羅尼幢>이라는 제목이 확인되고 더불어 ‘丁巳’라는 간지표시로 미루어 1437년이나 1497년의 시기로 추정⁸⁾되고 있으므로 고려로부터 朝鮮初期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자의 다라니당 형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1027년에 조성된 성동리 다라니석당의 기단부와 전체 양식이 당시 다라니석당이 크게 유행하여 여러 불탑 표면에 장엄하거나 탑의 내부에 안치하기도 하였던 요의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그림 3>
청동다라니당(고려 11세기)¹⁰⁾
평북 피현군 성동리



<그림 4>
다라니석당(고려 1027년)¹¹⁾
평북 향산군 향암리

한편 제작의 시기가 11세기로 알려진 평북 피현군 출토 청동다라니당은 향산군 향암리 석당, 황해도 해주 다라니석당과 같은 형태를 축소하여 금속으로 제작한

7)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編, 『北韓文化財解説集 I』 (서울: 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257-260.

8) 光州直轄市 文化藝術課 編, 『文化財圖錄』 (光州: 光州直轄市, 1990), 60.

9) 이은희, “石幢,”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편』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259-260.

10) 안귀숙,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의 영향,” 『고려와 북방문화』 (서울: 養士齋, 2010), 243.

11) 이은희(1997), 261.

것으로 992년에 건립된 중국 門頭溝區 서쪽 雙林寺(遼代의 淸水院)의 佛頂尊勝陀羅尼幢과¹²⁾ 산서성 대동 하화엄사 薄伽敎藏殿 앞의 요대 다라니석당(1095), 그리고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소장의 요대 南京道 涿州의 사찰에 있었던 다보천불 석당(1084)¹³⁾ 등과 함께 넓은 범주의 상호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거란의 문화가 고려에 유입되는 직·간접적인 창구로 들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북송대 徐兢이 남긴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에 온 요의 사신들이 머물렀던 관사에 대해서 “순천관 뒤에는 10여 칸 되는 작은 관사가 있어, 심부를 보내고 소식을 전달시키고 하는 사람들을 접대하였다. 迎恩館은 南大街의 興國寺 남쪽에 있고, 仁恩館은 영은관과 나란히 있는데 전에는 仙賓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 이름으로 고쳤다. 이것들은 다 이전에 거란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¹⁴⁾라 하여 고려와 거란의 제도적 교류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¹⁵⁾ 그 예로 1090년(宣宗 7) 9월에 요에서 31명의 생신 축하사절을 보내왔을 때 道宗의 『御製天慶寺碑文』을 고려 조정에 전하고자 하니 왕은 요나라 사신들을 위하여 축하연을 베풀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평화 속에서도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양국관계지만, 정치적 교류는 물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였고 그 영향도 컸기 때문에 거란이 멸망한 후 당시 고려사회에 정착한 거란문화의 양상에 대해서 개탄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¹⁷⁾ 그러나 숙종이 사망하고 예종이 즉위한 후 관례에 따라 거란과 사절왕래가 이어졌고, 거란은 앞서 ‘甲申之戰’ 때에 여진에 잡혀갔다가 거란으로 逃入한 고려 군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생신 축하 사절편으로 대장경을 보내는 등 문화교류를 양국의 관계 개선에 활용하였다.

12) 阿南ヴァージニア史代, “遼南京の仏敎文化雜記,” 『契丹[遼]と10~12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東京: 勉誠出版, 2013), 152.

13) 김재만, 『거란·고려관계사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9), 243.

1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27 館舍 <客館>.

15) 天祚帝 제위 말기에 이르러서는 金の 강성 등 국제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여러 방면에서 거란의 영향은 줄어들게 되었다.

16) 『高麗史』卷10 宣宗 7年 9月 辛未(條).

17) 『高麗史』卷16 仁宗 7年 5月 甲辰(條).

3. 契丹의 出版文化

3.1 契丹의 印刷文化와 刊行 佛書

3.1.1 印刷文化의 發達과 史的 背景

요의 태조가 공자와 儒者를 존숭하고 불교를 신봉하자 연경에는 많은 사원이 들어섰고, 승려들의 수 또한 늘어났다. 당시 요의 정치·경제·문화 정책의 실시는 출판분야의 번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유학 및 불교를 적극 수용하여 교육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서적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당시 송과의 무역을 통해 국가의 정치 및 군사 관련 서적을 비롯한 經書 등 많은 서적이 유입되었던 까닭에 이를 견제하던 송의 眞宗은 遼와의 국경지역에서 九經을 제외한 서적의 교역을 금하는 조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서적들이 요나라에 유입되었다.

요대의 契丹藏과 佛經의 경우 대부분 사원에서 刻印하였지만 印經 사항은 국가기관인 印經院에서 일률적으로 주관하였다. 한편 요나라는 국가적으로 거행한 출판 이외, 연경 지역의 민간에서도 출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私刊本으로 『生經疏科文』 卷1(楊家 印造)과 『妙法蓮華經』 卷4(馮家 刊行)가 있다. 이 밖에도 『佛說八師經』, 『蒙求』 등이 간행되었었다.

3.1.2 遼代 刊行의 現存 文獻

기록에 나타난 요나라 때 간행된 서적은 그 종류와 수량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 수가 적다. 1974년 산서성 응현 목탑과 1987년 하북성 풍운현의 고탑 등지에서 다량의 요대의 서적이 발견되었다.

3.1.2.1 應縣木塔 發見本

요의 산서성 응현 목탑은 1056년(淸寧 2)에 건립된 목조 불탑으로 佛宮寺釋迦

탑이라고도 한다. 1974년 7월 불탑을 수리할 당시, 4층에 있는 석가모니상의 복장 안에서 다량의 요대 인쇄물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물로는 契丹藏 12종, 기타 불경 35종, 서적과 조각 30종, 채색된 불상 6종 등 모두 83종이다.

발견된 서적 가운데 당나라 李翰이 편찬한 『蒙求』는 불경이 아닌 유일한 교육서로 고대 어린아이들을 계몽하는 내용이며 역사인물과 고사를 수록하고, 대우와 압운의 句式을 채용하여, 1구 4자로 배자되어 있다. 위아래 2구는 대귀를 이루며, 매 구에는 한 명의 역사 인물이 등장한다. 본문에는 ‘明’, ‘眞’, ‘眞’, ‘眞’자의 괴뢰 결획을 통해 요나라 興宗 耶律宗眞 시기를 기점으로 판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각의 수준은 동시대에 간행된 불경에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에서 간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3.1.2.2 豐潤 天宮寺塔 發見本

1987년 하북성 풍운현에 있는 密檐式¹⁸⁾ 13층 고탑에서 수 종의 불경이 발견되었다. 이 탑은 전형적인 요대의 탑으로 『豐潤縣志』에는 ‘天宮寺塔’이라 기록되어 있다.

1976년 7월 28일 唐山 大地震으로 천궁사탑이 피해를 입어 탑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1987년 8월 省과 市의 文物部門에서 탑을 수리하였는데 당시 현장 수리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8월 18일 12층 塔心室에서 많은 수의 문물과 釋迦牟尼銅佛像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불복장에서 발견된 목판본 『圓覺經』 낙장 1장은 해서체로 쓰여져 있으며, 매 행 13자로 되어 있다. 이후 8월 25일에 8층 탑심실의 북쪽 담장 아래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에는 많은 수의 요대 경전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종수는 약 10여 종이다.¹⁹⁾

출토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인본으로는 문헌의 기록상에만 있고 실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소자본 거란장과 범어와 한문이 대조된 불경 『梵漢合璧佛經散葉』; 陀羅尼集이 있다.²⁰⁾

18) 탑신이 생략되거나 매우 낮게 처리되어 지붕 부분만 겹겹이 쌓아 올린 것 같은 탑.

19) 李際寧, 『佛經版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94.

20) 이 외에도 『大唐新翻譯大乘本生心地觀經』은 앞부분에 수록된 御製序를 통해 요대 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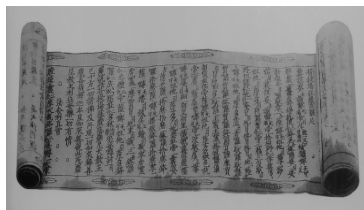
한편 1999년 鼎豐 拍賣公司에서 출품되어 세상에 알려진 요대의 판각본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疏』는 당대 慈恩山 沙門 窺基가 찬한 것으로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贊』 또는 『彌勒上生經瑞應疏』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책은 零本 1책(卷上)의 皮紙로 된 권축장 형태로 권수는 소실되었고 전체 16장만이 남아 있다. 매 장은 30행 20자이며 간혹 19-21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마지막 장에는 ‘上三十五’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보아 권상의 전체 장수는 35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교감하여 읽거나 주석을 기록한 흔적이 있으며 35장의 경문과 경소가 시작되는 곳에 ‘弓’, ‘1’ 등이 朱書 기록되어 있으며 권말제 좌측에는 ‘燕京憫忠寺進唯識論法華經釋詮曉定本’이란 기록이 있다. 이 책은 현재 芷蘭齋에서 소장하고 있다.

3.1.2.3 慶州 白塔

慶州 白塔은 일명 釋迦佛舍利塔으로도 불리며, 興宗 1047년(重熙 16) 2월 탑을 세우기 시작하여 1049년(重熙 18) 7월 15일 준공하였다. 탑을 세운 목적은 興宗 耶律宗眞의 모친인 章聖皇太后를 위해 특별히 세운 것이다. 경주 백담에 入藏品 중에는 1007년(統和 25) 인쇄된 『佛形象中安置法舍利記』와 1017년(開泰 6)에 인쇄된 『妙法蓮華經』, 『觀彌勒上升兜率天經』 그리고 陀羅尼經板, 七佛法舍利塔과 그 탑 내에 不空이 번역한 菩提場陀羅尼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다.



<그림 5> 陀羅尼經板²¹⁾



<그림 6> 菩提場陀羅尼²²⁾

본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단정한 해서체이고 글자의 새김이 정밀하여 요대의 높은 판각 수준을 알 수 있다.

3.2 契丹大藏經

契丹族이 遼를 건국한 시기인 11세기에 漢文大藏經을 출판했다는 사실은 妻木直良의 논문²³⁾을 통해서 학계에 알려졌다. 妻木直良에 의해 언급된 한문대장경(거란대장경)의 실물이 1974년 7월 山西 應縣 木塔의 釋迦像佛腹藏에서 처음으로 다수 발견되어 木板 佛經 47卷 중 천자문의 번호가 부여된 대장경 12종(<표 2>)이 확인되었고,²⁴⁾ 또 10여년이 지난 1987년에 하북성 풍운의 고탑에서 목판 불경 11종(<표 3>)이 발굴되었다. 그 중에 천자문 번호가 부여된 대장경 3종이 함께 있었다.

<표 2> 응현 목탑에서 발견된 거란대장경

연번	經 名	著・譯者	千字文 次例
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47	佛陀跋陀羅	垂109
2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4	實叉難陀	愛113
3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6	實叉難陀	愛113
4	大方廣佛華嚴經 卷第51	實叉難陀	首116
5	妙法連華經 卷第2	鳩摩羅什	在131
6	稱讚大乘功德經 1 ●	玄奘	女161
7	大法炬陀羅尼經 卷第13	闍那崛多	摩181
8	大方便佛報恩經 卷第1	.	欲190
9	中阿含經 卷第36	僧伽提婆	清264
10	阿毗達磨發智論 卷第13	玄奘	弟356
1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1卷	法天	刻527
12	一切佛菩薩名集 卷第6	德雲 集	勿564

●: 有題記

21) 西日本新聞社, 『草原の王朝 契丹』; 美しき3人のプリンセス (九州: 西日本新聞印刷, 2011), 160.

22) 西日本新聞社(2011), 165.

23) 妻木直良, “契丹に於ける大藏經雕造の事實お論ず,” 『東洋學報』 2輯(1912), 330.

24) 竺沙阿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88-89.

<표 3> 풍운 고답에서 발견된 목판 불경 11종

연번	經 名	著・譯者	千字文 次例
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法天	女161
2	佛說阿彌陀經	鳩摩羅什	
3	佛頂心觀世音經	·	
4	梵漢合璧佛經散葉 ; 陀羅尼集 ●	·	卿496
5	金光明最勝王經1冊	義淨	
6	金剛般若波羅蜜經1冊 ●	鳩摩羅什	
7	大乘本生心地觀經	般若	壁487
8	諸菩薩名集 一函六冊	思孝	
9	大方廣佛花嚴經 ●	鳩摩羅什	平・章・愛・育 黎・首・臣・伏 111-118
10	大乘妙法蓮華經 一函八冊	鳩摩羅什	
11	大乘中興三藏聖教 一冊	·	

●: 有題記

3.2.1 발견자료의 題記와 형태사항

응현 목답과 풍운 고답에서 발견된 대장경 가운데 각각 1종(『稱讚大乘功德經』)과 3종(『梵漢合璧佛經散葉』, 『大方廣佛華嚴經』, 『大乘本生心地觀經』)에서 題記가 나타났다. 題記가 나타난 경전들의 형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1 응현 목답(거란장 대자본)

稱讚大乘功德經:

『稱讚大乘功德經』은 玄奘이 한역한 것으로 장정의 형태는 권축장이고 천자문 함자는 ‘女’이다. 행자수는 28行, 15-17字에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권말에 수록된 제기에는 ‘時統和貳拾壹祀癸卯歲(1003)界春月莢生五葉記’라는 간행 기록이 나타나며, 穆咸寧・趙守俊・李存讓・樊遵 등이 雕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1.2 풍운 고답(거란장 대자본 · 소자본)

① 梵漢合璧佛經散葉；陀羅尼集

『梵漢合璧佛經散葉』의 장정 형태는 蝴蝶裝이었으나 지금은 낱장으로 떨어져 있다. 천자문의 함차는 ‘卿’이고, 행자수는 12行, 13-16字에 邊欄은 四周雙邊이다. 細黑口로 판심 부분에 經名과 張次가 있다.

② 大方廣佛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은 實叉難陀가 한역한 것으로 장정의 형태는 蝴蝶裝이며, 천자문 함차는 ‘平·章·愛·育·黎·首·臣·伏’이다. 행자수는 12行 30字에 邊欄은 上下單邊左右雙邊이다. 1함 8책 가운데 1, 2, 5, 6, 7책의 권말에 수록된 題記에는 ‘… 時重熙十一年歲次壬午(1042)孟夏月甲戌朔雕印記 燕京左街僧祿崇祿大夫檢校太保演法通慧大師賜紫沙門瓊煦提點雕造’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1042년에 瓊煦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大乘本生心地觀經：소자본

『大乘本生心地觀經』은 비록 題記가 있으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는 경전으로 장정의 형태는 蝴蝶裝이며 천자문의 함차는 ‘壁’이다. 천자문의 함차는 거란장 대자본의 함차와 일치한다. 행자수는 20行 20字에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白口와 판심에 經名과 卷次가 있다. 권말에 수록된 제기에는 ‘咸雍六年(1070)十一月奉宣雕印 …’이라는 기록을 통해 간행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풍운에서 발견된 3종의(『大方廣佛華嚴經』·『大乘本生心地觀經』·『梵漢合璧佛經散葉』；陀羅尼集) 대장경에 대하여 方廣錫은 거란장 소자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²⁵⁾

그는 곧, 『梵漢合璧佛經散葉』；陀羅尼集은 민간에서 간행한 인쇄본이고, 『大方廣佛華嚴經』은 燕國長公主가 雕造한 單刻本일 뿐이며, 『大乘本生心地觀經』만이 거란장 소자본의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25) 方廣錫, “遼藏版本及『遼小字藏』存本,” 『再雕大藏經과 東亞細亞의 大藏經』(2013. 11), 9-17.

제시하고 있다.

먼저 『梵漢合璧佛經散葉』; 陀羅尼集에 대해서는 형태사항에 근거하여

- ① 梵文과 漢字音譯이 함께 배자
- ② 半葉 6행으로 梵文과 漢字釋音이 각 3行 10字, 漢字는 半葉 6行 15字
- ③ 크기는 14.9cm×7.5cm, 匡郭은 11.6cm×6.6cm
- ④ 邊欄은 上下左右雙邊이고 細黑口, 版心에 經名과 張次

등에서 경전의 크기(14.9cm×7.5cm)로 인해 『梵漢合璧佛經散葉』; 陀羅尼集이 소자본 대장경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제까지 수진본 형태의 대장경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고, 朱子方이 추측한 ‘이 책이 거란장 소자본이 아닌 민간에서 간행한 인쇄본’²⁶⁾이라는 의견을 따랐다. 그리고 『大方廣佛華嚴經』에 대해서는 題記에 의거하여 燕國長公主가 雕造한 單刻本이기 때문에 대장경 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물론 이 단각본이 某本의 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풍운 고탑에서 발견된 『大方廣佛華嚴經』은 다만 燕國長公主가 雕造하여 單刻한 화엄경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였다.

方廣鎬은 『大乘本生心地觀經』만이 거란장 소자본 인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蝴蝶裝
- ② 半匡: 21cm×11.3cm
- ③ 10行 20字
- ④ 四周雙邊, 백구, 판심에 경명과 권차·장수 표시
- ⑤ 題記에는 관직과 신분만 새김
- ⑥ 천자문의 함차 표시는 그 차례가 요나라 대장경과 일치

3.2.2 雕造時期와 관련된 諸說

응현 목탑에서 거란대장경의 실물이 나오자 학계에서는 경판의 조조시기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竺沙雅章은 ‘『稱讚大乘功德經』의 권1에 統和 21年(1003)의 題記가 있고 또 道宗의 訛誤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거하여

26) 方廣鎬(2013), 14.

그 시기는 聖宗朝이며 道宗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²⁷⁾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3년 羅炤는 『稱讚大乘功德經』이 單刻의 불경으로 거란장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으며²⁸⁾ 그러나 竺沙雅章은 일개 승려가 官版大藏經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함가순을 부여하여 경전을 독립적으로 간행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책을 관판대장경 보다 앞선 시기에 번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⁹⁾고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자료로 房山石經에 行數와 行字, 字體까지 거의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道諤이 간행한 『稱讚大乘功德經』은 房山石經과 같이 관판대장경에 앞서서 번각된 것이며 統和 21年(1003) 이전에 새겨져 유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羅炤는 거란대장경의 조조시기의 재론에서 聖宗朝의 ‘統和藏’과 興宗, 道宗朝의 ‘重熙-咸雍本’의 두 종류라고 이론을 수정하였다.³⁰⁾ 이러한 경판의 조조시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契丹藏이 遼 興宗 重熙年間(1032-1054)에 經板의 조조가 시작되어 道宗 咸雍 4년(1068)에 판각을 마친 것으로 종래 학계에서 조조시기를 추측하고 있다.

이 契丹藏은 후세 불교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는데, 특히 여러 번 高麗에 유입되어 高麗 寫經 혹은 대장경 등 출판의 底本 혹은 교정의 기준본으로 활용되었고 또한 大覺國師 義天의 敎藏에서 저본으로 활용된 것과 再雕大藏經의 守其法師가 교정의 참고본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遼本 系統의 高麗本

4.1 大藏經

통일 신라시기 8세기 중반에 간행된 불국사 석가탑 발견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고려 1007년 攄持寺에서 開板한 『寶篋印陀羅尼經』의 卷首 版畫와 본

27) 竺沙雅章(2000), 89.

28) 羅炤, “『契丹藏』의 印刷年代,” 『中國歷史博物館館刊』 5(1983), 15-17.

29) 竺沙雅章(2000), 319.

30) 羅炤, “再談『契丹藏』의 雕印年代,” 『文物』(1988).

문의 板刻術은 吳越의 顯德板이나 北宋의 開寶板과 견줄만 하다. 이러한 현존하는 초기의 목판인쇄물들의 서체, 판각술, 인출, 제본과 불교문화의 파급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는 국초부터 중앙이나 지방의 여러 사찰에서 각종 불교 서적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쇄술의 발달은 당시 중국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판각 간행된 대장경의 도입과 그 영향으로 독자적인 대장경을 가지고자 하는 염원에서 대규모 목판간행이라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北宋에서 동양 최초로 간행된 거질의 『開寶勅板大藏經』이 989년(成宗 8)에 如可와 991년(成宗 10) 韓彥恭에 의해 수입되었고 당시 불교문화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던 고려는 그 藏經을 조조하여 불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

한편 주변의 국제적 정세에 있어 契丹이 강성해지면서 蕭遜寧이 993년 대군을 이끌고 西北邊에 쳐들어 왔을 때 격퇴시키기도 하였지만 연이어 1011년(顯宗 2)에 다시 開京에까지 침입해 오고 국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국난을 당하였다. 이 때 당시 왕과 신하들은 국난을 타개하는 국가적 방법으로 대장경을 판각하여 佛力으로 적을 물리치고자 거국적으로 발원하였다. 그 결과 1011년경에 初雕大藏經의 雕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再雕大藏經의 판각을 발원할 때 李奎報가 지은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침입은 계속되어 1014년(顯宗 5) 3월부터 변경의 龍州 및 六城 등에 1차 침입, 1016년(顯宗 7) 정월 郭州에 2차 침입, 그리고 顯宗 9년 12월에서 10년 2월 사이에 3차 침입까지 이어지다가 龜州大捷 등을 통하여 전쟁이 멈추어지고 이후는 평온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 조성된 초조대장경은 13세기 초 재조대장경을 만들 때 작성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에 나타난 기록에서 초조본에 해당하는 國本과 契丹本을 참고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1011년부터 시작된 대장경이 1029년 경에 1차 완성이 되고 이후 요에서 거란대장경이 완성되어 1063년 경 고려로 전래되어 대장경의 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려와 요의 양국간 교류기록으로 볼 때, 이미 契丹大藏經이 수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란대장경이 고려에 將來된 기록으로, 『遼史』 「高麗傳」에 1062년(淸寧 8) 12월 佛經一藏을 徽(文宗 諱)에 賜給하였다고 했고, 『高麗史』 文宗世家條에는 17년(1063) 3월에 거란이 대장경을 보내 와서 임금이 法駕를 갖추고 西郊에서 맞아들였다고 전해진다. 또 『遼史』의 「道宗本紀」를 보면 1072년(咸雍 8) 12월조에도 고려에 불경일장을 사급한 기록이 있지만³¹⁾ 거란대장경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문종 17년으로 추정된다. 그 뒤 1099년(肅宗 4)과 1107년(睿宗 2)에 또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高麗史』 1099년(肅宗 4) 4월 丁亥條에 요나라 사신 巢郎이 고려에 가서 대장경 한 부를 증여하였고,³²⁾ 요나라 천조황제가 또다시 고려에 高存壽를 보내 대장경 1부를 증여하였다고³³⁾는 기록이다. 그리고 『三國遺事』에는 고려 예종 연간(1105-1122) 초에 慧照國師가 조서를 받고 중국에 유학승으로 갔다가 遼本 대장경 3부를 사서 귀국하여 한 부는 定惠寺에, 한 부는 海印寺에, 다른 한 부는 許參政宅에 보관하였다고³⁴⁾ 전해진다. 이상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거란대장경의 국내 전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거란대장경의 고려 전래 기록

명칭 및 수량	전래 시기	관련 인물	출처
大藏經	1063년(문종 17)		高麗史, 遼史
佛經一藏	1072년(문종 26)		遼史
藏經	1099년(숙종 4)	巢郎	高麗史
大藏經	1107년(예종 2)	高存壽	高麗史
遼本大藏 3부	1105-1122(예종)	慧照國師	三國遺事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교정 기록에 契丹藏經은 각 줄 17자라 하였고, 元宗·忠烈王年間の 승려인 宓庵이 쓴 『丹本大藏經慶讚疏』에 의하면 “部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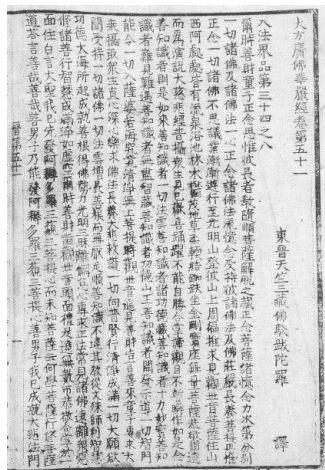
31) 9년 뒤인 문종 26년(1072) 12월에 다시 대장경이 들어온 기록은 『遼史』 「高麗傳」이나 『高麗史』 「文宗世家」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淸寧八年十二月」을 「咸雍八年十二月」로 잘못 옮겨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2) 『高麗史』 卷11 肅宗 4年 4月 丁亥(條).

33) 『高麗史』 卷12 睿宗 2年 正月 庚寅(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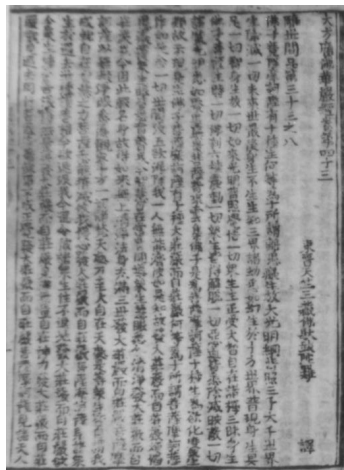
34)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간경하여 200函이 되지 못하고 책장이 얇고 글자가 뻥뻥하여(紙薄字密) 책이 1,000冊이 되지 못하지만 매우 정교하다.”고 서술하였다. 이때 복암이 본 契丹本은 위에서 말한 17자본보다도 더 작은 글자로 뻥뻥하게 써서 얇은 종이에 찍어 조그마한 형태로 성책했기 때문에 부질이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이가 얇고 매 줄 34자인 ‘紙薄字密’의 거란 간본을 바탕으로 새겨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毘盧遮那佛 腹藏에서 나온 晉本『大方廣佛華嚴經』의 호접장본과 영주 부석사 소장 목판 晉本『大方廣佛華嚴經』도 판식의 형식(17행 34자)으로 볼 때 소자본 거란대장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림 7> 해인사

晉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51³⁵⁾



<그림 8> 부석사

晉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43

두 판본은 그 판식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변란에서 부석사본이 쌍변으로 다르고 글자도 해인사본이 더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그밖에 거란대장경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5) 海印寺 聖寶博物館,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誓願서원 (합천군: 海印寺聖寶博物館, 2008), 47.

권제13 하의 傾函『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校正記를 살펴보면 ‘國前本과 宋本’ 중의 탈본을 ‘國後本 및 契丹本’에 의해 보충하였다고 할 때 국전본은 송본에 의거 판각한 초조본을 뜻하고, 국후본은 거란본에 의거 板刻한 初雕本으로 추정할 수 있다.

初雕大藏經의 판각에 저본이 된 것으로서는 기록과 판본으로 볼 때 北宋開寶勅版, 契丹版, 宋新譯經版 이외에도 종래부터 전래되어 온 국내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이 譯文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契丹版이 적지 않게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4.2.1 高麗版 藥師經(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이 책은 29장 1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며 표지가 개장된 오침안 선장본으로 표지는 題簽이 탈락하고 墨書로 ‘藥師經卷之一’이라 기록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에는 ‘鞠’자의 합차 표시가 있고 저자 사항은 ‘三藏法師 玄奘奉詔譯’이다.

版式은 권자본을 線裝으로 바꾼 까닭에 板尾題 부분의 위치³⁶⁾가 정확하지 않다. 권말제는 ‘藥師如來本願功德經’으로 축약되어 있고 간기는 ‘乾統二年壬午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인데 乾統二年은 遼의 天祚帝 2년(1102)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義天에 의한 敎藏이 마쳐진 시기로 책의 형태적인 느낌과 서체, 권말의 간기 표시방법 등은 敎藏과 흡사 하지만 일반적으로 敎藏類에는 합차표시가 없는 것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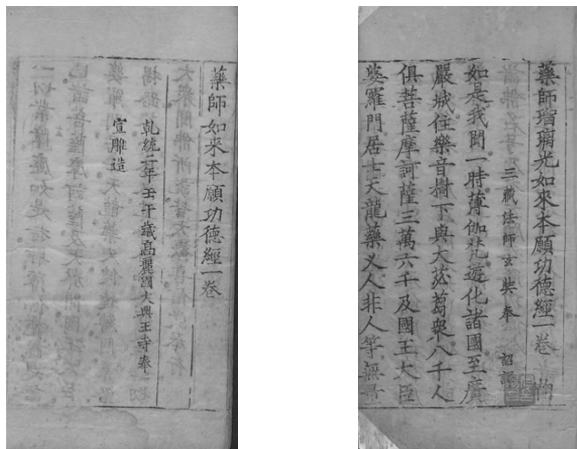
권수의 ‘鞠’자의 합차표시는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고려대장경에서의 ‘恭’을 비롯하여 중국의 역대 대장경에서는 주로 ‘惟’자합에 해당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합차가 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입되었던

36) 현재의 책은 전체가 29장이나 마지막 장에는 行間에 ‘十五’라 기록되어 저본은 전체가 15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란대장경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책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 행에 15자의 배열³⁷⁾을 가진 것은 중국 應縣木塔에 서 발견된 『大方廣佛華嚴經』 권24, 26(愛函), 권51(首函)로 글자의 서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거의 흡사하므로 거란대장경을 번각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번각의 예는 敎藏을 간행할 때도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일부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義天에 의한 敎藏의 雕造는 1091년부터 시작하여 마쳐진 것은 1102년으로 의천이 1101년 8월에 발명하여 10월에 입적하였으므로 그 다음해 초에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병의 치유를 기원하기 위하여 착수한 『藥師經』의 간행도 1102년에 완성되었을 것³⁸⁾으로 보고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藥師經』 중 현존하는 고려본은 海印寺 비로자나불 腹藏에서 발견된 50여건의 初雕大藏經本과 같은 복장에서 나온 정교한 변장도가 있는 卷子本으로 11-12세기의 간행본과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해인사 판본의 번각 고려본이 있다.



<그림 9> 高麗版 藥師經

37) 옹현 목답 발견의 遼藏은 한 줄에 15자, 16-18자의 배열 등 경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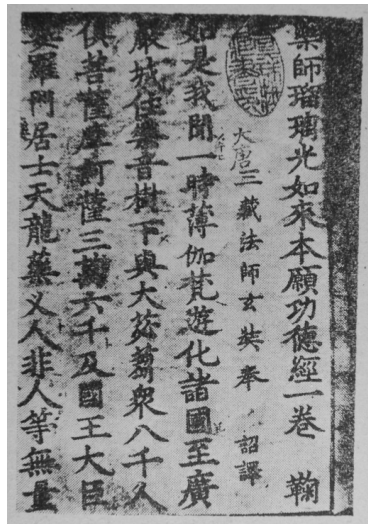
山西省文物局, 中國歷史博物館 共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11-12.

38)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72.

4.2.2 安心寺版 藥師經³⁹⁾

이 經은 29장 1책이며 크기는 27.3×16.2cm로 개장된 方冊本이다. 匡郭은 21.9×27cm이며, 판심은 상부에 「藥」 1자, 하부에 장차를 표시한 숫자가 있다.

판심의 형식에는 2종이 있어서 판면중 2, 5, 9-10, 12, 14-23의 15장은 그 판식이 변란, 계선과 어미를 갖추고 있으며 1, 3-4, 6-8, 11, 13, 24-29의 14장에는 계선과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25, 26장은 계선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2종의 서체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서 補板 내지는 刻手에 의한 차이로 추정되지만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10> 安心寺版 藥師經

제1장 1행에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一卷’과 제목 1字 정도의 간격을 두고 最下端에는 ‘鞠’자가 있으며, 2행에 위치를 낮추고 작게 쓴 ‘三藏法師玄奘奉

39) 이 판본의 현재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神尾式春의 글과 도판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詔譯’이라는 번역자 표시가 있다. 또 제1장의 광곽 바깥 오른쪽 아래에는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雲史’라는 기록이 있다. 그 외 본문 중 몇 부분에 삽입되어 쓰여진 목서가 보이고 전권에 걸쳐 목서의 구결이 있다. 제2장에는 ‘隆慶四年 月 日 無等山安心寺開板’이라는 간기와 간행 당시에 시주한 관련 인물들의 명단으로 供養施主에는 吳恩世 兩主, 君非 不呆體, 杜岑, 應浩가 참여하고 施主兼剖에는 義惠와 玄修, 執務에는 慧澄과 印珠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문자나 내용은 神尾式春이 安心寺版 藥師經을 대장경 등과 대조하여 대체로 20여 곳에서 차이점이 나타나 고려본을 重刊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그 차이 중 특별하게 나타나는 예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고 있다.⁴⁰⁾

- ① 경전의 제목 중 ‘瑠璃光’의 ‘瑠’가 고려본에는 ‘琉’라 되어 있음. 『大正藏』脚註에 의하면 안심사본과 같이 ‘瑠’라 하는 것은 燉煌本일 뿐 宋, 元, 明三本을 시작으로 다른것은 모두 ‘琉’라 되어 있음. 특히 『一切經音義』, 『隨函錄』, 『開元錄略出』에는 ‘瑠’임.
- ② 제1大願 중 ‘八十隨好’가 ‘八十隨形好’로 돈황본과 부합함.
- ③ 제10大願 중 ‘錄縲縛’이 ‘繩縛錄’으로 돈황본, 宮內省本과 일치함.
- ④ ‘軒窓’이 ‘軒牕’으로 『一切經音義』와 일치함.
- ⑤ ‘妖嬈’이 ‘妖嬈’으로 『수함록』, 궁내성본과 부합되고 있다.

大遼涿州 雲居寺 續祕藏 石經 塔記 所載 경전의 천자문 번호가 갖추어진 可洪이 저술한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의 帙號와 일치하는 사실로 보아 거란장의 函號는 『수함록』의 절호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新集藏經音義隨函錄』에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藥師如來本願經』 등 6經 10卷⁴¹⁾이 同帙의 ‘鞠’자 함차가 부여되어 있다. 이에 안심사판 약사경의 函號는 거란판 대장경의 함호와 일치하고 위의 5가지 예에 의하여 神尾式春은 안심사본의 내용을 돈황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서명과 함께 기록된 ‘鞠’자의 함차에 의하여 거란대장

40) 神尾式春, “安心寺板藥師經について,” 『東方文化襍考』(東京: 第一書房, 1982), 218.

41) 6經 10卷은 다음과 같다. 『藥師如來本願經』 1卷,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1卷, 『藥師瑠璃七佛本願功德經』 兩卷, 『文殊師利普超三昧經』 3卷, 『阿闍世王經』 兩卷, 『放鉢經』 1卷이다.

경과 같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하여 이 판본은 앞의 1102년 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4.3 『龍龕手鏡』

4.3.1 『龍龕手鏡』의 刊行과 傳來

『龍龕手鏡』은 遼의 학승인 行均(幽州人)이 遼의 聖宗 15년(997)에 독경과 염불을 돕기 위해 여러 경전에 나오는 한자에 音注와 釋義를 붙인 것으로 『說文』과 『玉篇』, 그리고 불경에서 한자를 추려 편찬한 자전이다. 한자 26,433자를 平聲 97부수, 上聲 60부수, 去聲 26부수, 入聲 59부수의 242부의 偏旁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각 部內的 글자를 다시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나누었으며 字음을 反切法으로 표시하였다.

이 책은 처음 간행 이후 北宋에서 翻刻되었고 고려와 일본에서도 간행되었지만 遼版의 원본이나 北宋의 翻刻本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으며 후대 판본 중 南宋의 刊本은 제목을 약간 고쳐 熙寧年間(1068-1077)에 宋 翼祖(宋 太祖 趙匡胤의 祖父)의 이름인 ‘敬’과 동음인 ‘鏡’을 避諱하여 『龍龕手鑑』으로 유통되었다.

한국에 전래된 판본 중 1472년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에 대한 기록은 조선판 『蒙山和尚法語略錄』의 말미에 부재된 金守溫의 跋文에서 『法華經』 60건과 함께 『龍龕手鑑』 50건도 版木을 模印하게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발문의 작성 시기는 1472년(成化 8)으로 그 이전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던 목판에서 채출해낸 기록으로 이는 일찍이 고려 말이나 조선 건국 초기에 한반도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563년(朝鮮 明宗 18)에 황해도 歸眞寺에서 간행된 것도 서명이 『龍龕手鑑』으로 나타난다.

이 책의 전래과정을 살펴보면 출판 후 70여 년을 지난 宋의 神宗때에 傳堯俞가 遼의 포로로부터 책을 구하여 집에 두고 보존하였던 것을 蒲宗孟이 이를 浙西에서 熙寧年間(1068-1077)에 간행한 것이다. 蒲宗孟(1022-1088)은 1053년(仁宗

皇祐 5) 진사에 급제⁴²⁾하고, 1073년(神宗 熙寧 6) 집현교리로 한림학사에 뽑히고⁴³⁾ 尙書右承 등을 지낸 사람이다. 王國維(1877-1927)의 『兩浙古刊本攷』卷上에 의하면 蒲宗孟이 『龍龕手鏡』을 간행한 것을 북송 원우 원년(1086)으로 추정하여 앞의 熙寧年間の 간행시기 추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려 전래와 관련되어 대각국사가 1085년(宣宗 2)에 宋에 들어가 다음 해에 귀국할 때 불경과 유교 경전 1천 권을 바쳤고 遼와 宋에서 구입한 책이 4천 권에 이른다⁴⁴⁾고 하였으므로 이 때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3.2 高麗本 『龍龕手鏡』

고려본의 권수에 수록된 燕臺 憫忠寺의 智光(字는 法炬)스님의 『新修龍龕手鏡序』에 의하면 이 책은 宮商으로 다스리고 喉齒로 세분한 本字가 26,430여 자이고 163,170여 자의 주석자를 합하면 도합 189,610여 자에 달하며 이를 4권으로 나누어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현존하는 고려 판본 중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은 2권 1책(권3, 4)으로 원래 전남 順天의 松廣寺에 舊藏되었던 것이며 제3권 13장과 제4권 9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금강산 楡岾寺에 전래되고 있었던 책은 그 版式과 紙質이 고려대본과 동일하므로 원래 같은 帙의 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권4의 권말에는 ‘羅州牧官 雕刻 四卷入 九十三丈’, ‘司錄掌書記 借良醞令 權得齡’이란 간기와 간행자 기록이 있다.

고려본 『龍龕手鏡』은 저본인 요본에 의거하여 번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책에 나타난대로 羅州牧(1090년 牧으로 승격)에서 地方版으로 간행되었지만 전래 이후 나주목에서 간행되기 이전에 중앙에서 먼저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2) 『郡齋讀書志』卷19 『蒲左丞集』. “仁宗皇祐五年 進士.”

43) 『續資治通鑑長編』卷246. “六年 進集賢校理 同修起居注 知制誥 轉翰林學士兼侍讀.”

44) 『高麗史』卷90 列傳3 宗室1 大覺國師煦. “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 又於興王寺奏置教藏都監 購書於遼宋多至四千卷 悉皆刊行.”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龍龕手鑑』이란 서명의 宋版의 개간본이 나오기 이전 北宋의 熙寧 10년(1077)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초기 전래와 고려라는 국가와 요·송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龍龕手鑑』이라는 명칭에 의한 추정보다는 요판본을 번각하였다면 당연히 송판의 피회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번각하였을 것이므로 1077년 이전이라는 연대 비정은 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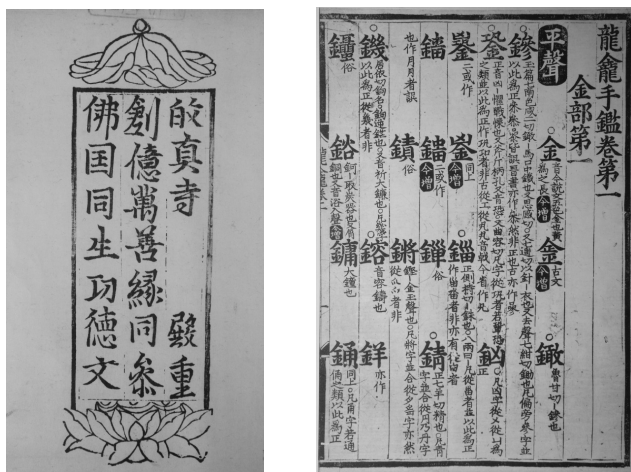
<그림 11> 高麗本 『龍龕手鑑』(고려대학교 소장, 국보 291호)

4.3.3 朝鮮本 『龍龕手鑑』

조선본 『龍龕手鑑』의 판본은 1472년(成宗 3) 인수대비(1437-1504)에 의해 간행된 판본과 1563년(明宗 18) 황해도 歸眞寺에서 간행된 판본 등이 있다.

그중 인수대비 때 인출하였던 판본은 이전부터 전해오던 고려본 『龍龕手鑑』이나 송본 『龍龕手鑑』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자수의 증보와 아울러 편집체제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4권 3책에서 8권 8책 체제로 바꾸고, 증보된 글자는 ‘今增’이라는 표를 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였다. 또 내용

중 입성이 59부수에서 60부수로 증가하였으며, 부수를 구별하기 위해 두 자씩 들어 쓰기를 하였다. 이 판본은 현재 일본의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2> 歸眞寺本 『龍龕手鑑』45)

한편 歸眞寺 간행본은 ‘嘉靖四十二年 高德山歸眞寺開板’이라는 刊記에 의하여 1563년(明宗 18) 황해도 서흥군 소재 고덕산에 있는 귀진사에서 간행되었으며 ‘大功德主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 判教宗事都大教師兼奉先寺住持 川則’이란 기록에서 普雨와 川則이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본 『龍龕手鑑』에서는 불경의 필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체자를 정리할 목적으로 편찬된 고려본 『龍龕手鏡』에 수용된 이체자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고려본 『龍龕手鏡』과 송본 『龍龕手鑑』에서의 잘못된 부수를 수정한 점도 특이하다. 또 고려본 『龍龕手鏡』과 송본 『龍龕手鑑』에 수록된 오자를 조선본 『용감수감』에서는 본문 중의 주석문을 통해 바로잡았다.

45)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圖板』下 (京都: 便利堂, 1937), 155-156.

5. 敎藏類의 交流와 義天의 章疏 記錄

5.1 敎藏類

敎藏은 그 판각의 성격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나, 내란과 외침 등으로 소실되고 그 일부마저 해외로 유출되어서 刊記가 있는 조각 원본은 2種뿐인데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日本 奈良 東大寺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는 20권 40축 완질의 권자본으로 전체의 판식 형태에서 한 판의 행자수는 30행 20자이다. 卷第1上에서 卷第20下까지 모두 40軸으로 되어 있으며, 권수에 淸涼山大花嚴寺沙門 澄觀이 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卷第4下부터 卷第20下에는 宣宗 11年(1094)부터 肅宗 1年(1094-1096) 사이 高麗 興王寺에서 조조된 간기가 새겨져 있으며, 간기 표시가 없는 卷第1의 上부터 卷第4의 上까지의 7축은 卷次대로 거란대장경을 번각하여 판각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때 선종 11년(1094) 이전에 개판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종은 日本 大東急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貞元新譯華嚴經疏』 卷第10의 1軸이다. 이 책은 1095년(獻宗 元年)에 흥왕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5.1.1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卷第1上~卷第20下 40軸

淸涼山大花嚴寺沙門 澄觀 述

卷第1上~卷第4上7卷 刊記 없음

卷第4下~卷第5下3卷 大安十年甲戌歲 (宣宗11, 1094)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卷第6下~卷第10下10卷 壽昌元年乙亥歲 (獻宗, 1095)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卷第10下 1卷 壽昌二年丙子歲 (肅宗1, 1096)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卷第11下~卷第15下9卷 壽昌元年乙亥歲 (獻宗, 1095)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卷第16上~卷第20上9卷 壽昌二年丙子歲 (肅宗1, 1096)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卷第20下 1卷 壽昌二[三]年丁丑歲 (肅宗2, 1097)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이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는 1974년 中國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製 釋迦塔 봉안의 佛像에서 나온 같은 서명의 遼刊本 30行 20字의 체재와 본문의

(30행 20자와 10행 18자)에서 차이가 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2종 이상의 판본이 당시 간행되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5.1.2 『貞元新譯華嚴經疏』 卷第10 1軸

勅太原府大崇福寺沙門 澄觀 述

卷末: 壽昌元年乙亥歲(獻宗 元, 1095)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이 『貞元疏』라 불리는 이 책은 淸涼國師 澄觀이 貞元本 四十華嚴經에 대하여 註釋한 것으로 고려 교장본의 판본은 요나라 판본을 바탕으로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飜刻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중 義天이 귀국하여 淨源法師에 보낸 편지에서, 정원법사가 가지고 있던 新註正[貞]元花嚴經은 여러 해 동안 바라던 것인데, 이를 내려 주어 감격하고 기쁘다는 것과 스승의 뜻을 계속 받들 것을 생각하였고, 또 국왕이 책 끝에 署名하고 소요 물자를 주어 책 간행의 일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善聰法師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지난해에 전해드린 『新疏』 10권을 다행히 받으셨다 하오니 저의 정성에 부응해 주시어 참으로 기쁩니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淨源이 보내 준 『貞元疏』가 요판본이었으며, 이를 간행하여 스승을 비릇한 여러 法師・大德에게 보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5.1.3 『華嚴經談玄決擇』 卷第2~6

遼代 鮮演 述

原刊記: 壽昌二年丙子歲(肅宗 1, 1096)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이 『談玄決擇』은 遼나라 鮮演이 澄觀의 八十華嚴疏와 隨疏演義鈔의 序分이하 7門(疏 권1~3)에서 중요한 구절을 가려 해석한 것과 별도로 풀이한 演義鈔의 文句를 합쳐 편찬한 것이다. 제2권의 말미에는 壽昌 2년(肅宗 1, 1096) 興王寺에

서 奉宣彫造한 原刊記가 표시되어 있다. 이 판본은 宋에 전해져 그 뒤 여러 차례 사본으로 유포 되었다. 그 예로, 咸淳 7년(1271)에 湖州思溪法寶禪寺에서 南山高麗敎寺의 祕本을 빌려서 필사하였다는⁴⁷⁾ 사실을 辨智가 제4권 말미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통해 사본의 유포를 확인할 수 있다.

5.1.4 『釋摩訶衍論贊玄疏』 卷第5

宋代 法悟 述

原刊記: 壽昌五年己卯歲(肅宗 4, 1099)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이 『贊玄疏』는 遼末 西域으로 영토가 축소되었을 때 天佑帝가 龍樹가 지은 『釋摩訶衍論』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송의 유학승 通法大師 法悟에게 명하여 注釋을 짓게 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의 “釋摩訶衍論 贊玄疏五卷 法悟 述”에 해당한다.

5.1.5 『釋摩訶衍論通玄鈔』 卷第1

宋代 志福 述

原刊記: 壽昌五年己卯歲(肅宗 4, 1099)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이 『通玄鈔』는 龍樹가 지은 『釋摩訶衍論』에 대하여 西遼의 天佑帝가 당시 慈行大師 志福에게 勅命으로 注釋을 짓게 한 것이다. 권제1 권수에는 天佑帝御製序가 있다. 『新編諸宗教藏總錄』의 “釋摩訶衍論通玄鈔 四卷 志福 述”에 해당한다. 이 책도 『贊玄疏』와 같이 일본의 仁和寺 親王이 長治 2년(1105) 5월에 太宰寺 藤原朝臣 季中에 의뢰하여 고려에서 가져간 것이며, 高野山에서 弘安 5년(1282)에 고려본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하여 重刻한 것이다.

한편 의천은 『釋摩訶衍論』과 요의 여러 승려들이 『釋摩訶衍論』에 주석을 더

47) 河村孝照 編, 『(新纂)大日本續藏經 8』(東京: 圖書刊行會, 1975), 235.

한 저술, 곧 志福의 『釋摩訶衍論通玄鈔』· 守臻의 『釋摩訶衍論通贊疏』· 法悟의 『釋摩訶衍論贊玄疏』를 『新編諸宗教藏總錄』에 포함시켜 간행을 하고 이것을 宋과 遼, 그리고 일본에 유통시켰다. 특히 일본으로는 14세기 말까지도 교장이 底本이나 筆寫를 통해서 계속 전래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高野山 金剛三昧院에서 良俊이 正應 원년(1288)에 처음 찍어 낸 『贊玄疏』는 東北大學의 文永 2년(1265) 鈔本과 같은 권말 기록이 보인다. 일본의 동북대학 소장본 卷5의 권말에는,

壽昌五年己卯歲高麗國大興寺奉宣雕造
正二位行權中納言兼太宰帥藤原朝臣
季仲依仁和寺 禪定二品親王作遣
使高麗國請來即長治二年乙酉五月
中旬徒太宰差專使奉請之
文永貳年二月 日於龍角寺向坊書寫了
覺了
一校了円惠

라는 간기가 있고, 卷3의 간기와 필사 기록 부분은 “壽昌五年己卯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文永二年二月 日 書寫了 執筆靜圓 一校了円惠”이다. 즉 일본 仁和寺의 二品 法親王이 太宰府의 장관이었던 權中納言 藤原季仲에 명하여 1105년(長治 2) 5월, 고려국에 사절단을 보내어 고려관 『贊玄疏』를 가지고 와서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다.⁴⁸⁾

5.1.6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第1~2 零本1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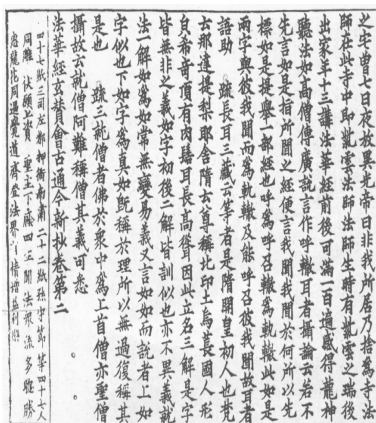
憫忠寺沙門 詮明 集

原刊記: 全10권 중의 殘存 제1·2권이므로 原刊記 失

이 책은 전라도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된 것 중의 하나로, 唐나라 慈恩大師 窺基가 法相의 宗旨를 구현하기 위해 知恩 『法華經玄贊』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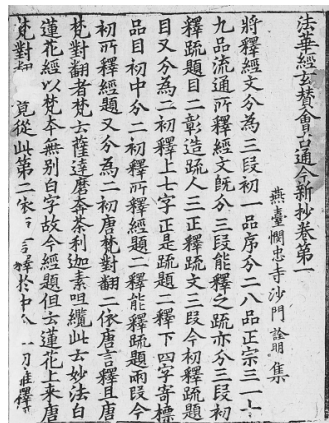
48) 森田龍僊, 『釋摩訶衍論之研究』(山城屋文政堂, 1935), 27.

대한 古今의 注釋을 燕臺 憫忠寺沙門 詮明이 補集한 것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法華經 會古通今新抄 十卷 詮明 述”에 해당한다. 開卷의 본문 앞에 실린 劉晟 撰의 서문 아래에 “서문이 宋本에 없고 遼本에만 있어 필사하여 새겨 빠진 것을 補完하였다”고 표시하고 있다. 중국 山西省 應縣 佛宮寺의 목판에서 나온 同書 권 2·6板本の 書影이 있다. 이 原刻本은 송본을 바탕으로 하고 송본에 없는 서문만을 요본에 의해 筆寫 板刻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판각이 매우 정교하고 인쇄가 양호하며 번각의 숨씨, 인쇄의 정교도 그리고 藁精이 섞인 劣品 楮紙의 사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조선 世祖朝의 刊經都監에서 정교하게 飜刻 重修한 敎藏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契丹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第249)



<그림 15> 敎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第1(승광사 소장)

5.2 義天 大覺國師와 章疏 交流 記錄

의천 대각국사는 불교문헌 중 대장경과 더불어 각 종파를 망라한 장소의 수집을 위하여 송으로 건너가 1년 반을 머물렀으며 귀국 후에는 장소의 결집을 위하여

49)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主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354.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고 국내는 물론 요와 일본의 승려들과 교류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중 요의 황제나 고승들에게 고려의 서적을 보내기도 하고 요에서 간행되거나 편찬된 장소들을 수집하는데 노력하였다. 또 요나 송의 고승들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요에서 간행되었던 자료의 서명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의천의 『大覺國師文集』에 수록된 일부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요의 황제에게 元曉의 章疏와 『唯識論單科』를 보냄

※ 소신 승(의천)은 아뢰입니다. 소신이 듣건대, “법(法)은 때를 기다려야 나타나고, 교(教)는 인연에 의하여 일어난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교법의 전파는 때와 인연이 은연중에 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冥會].⁵⁰⁾ 돌아보건대, 이 퇴폐한 법진은 성사(聖師)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⁵¹⁾ 제7장 · 제8장 결

※ … 이미 頒布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쇄가 막 시작되고 장황(粧黃, 제본)을 겨우 하고 있으니, 글을 읽는 맑은 음형[淸商]을 음물에 얹으면 무지개 물가에 상서로움이 내릴 것입니다. 이 훌륭한 秘詮으로 맑은 지혜를 더해 줄 것을 우러러 빕니다.⁵²⁾

② 요의 황제가 『寶林傳』과 『壇經』을 불태움

송나라 沙門 法隣의 편지에 “어제 副李에게 빼앗긴 물건 가운데 慧珠禪師의 別傳을 얻어서 그 참된 말씀을 성심으로 의논하였으며 後序는 승통법사께서 지으셨으니, 이것으로서 요나라 황제가 智炬의 『寶林傳』과 慧能의 『壇經』을 불살라⁵³⁾ 크게 법이 도움 됐음을 아시고 지극히 기뻐했으며, 또한 새로 편찬하신 新集敎乘目에 부처 경사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⁵⁴⁾

50) 대각국사 자신이 『唯識論』의 장·절을 나누고 科解한 『唯識論單科』를 보내면서 올린 표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51) 『大覺國師文集』 卷第8 表 4.

52) 『大覺國師文集』 卷第8 表 4.

53) 국사가 일찍이 요나라 황제가 『寶林傳』과 『壇經』을 불사른데 대한 질문을 받고 “妖妄을 잘 제거했다”고 평한 바 있다.

54) 『大覺國師外集』 卷第7 書 7.

③ 요의 鮮演대사가 『安樂伊記文』을 판각 간행함, 야율사제가 『慶錄大師集』, 『摩訶衍論記文』, 『御義』 5권을 보냄

※ 太保 鮮演대사가 『안락이기문』을 그곳에서 새기고 간행하여 올린 뒤에 또한 조정으로 하여금 조판하고 인출하게 하여 유통하도록 한 것이니 선연대사의 탁견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가지고 온 책을 읽어 보았는데 필사하는 사람의 실수로 음은 같고 글자는 틀린 예가 많아 새로 인쇄하여 간행한 1부를 가지고 와서 올립니다.⁵⁵⁾

※ 또 전의 『慶錄大師集』, 『摩訶衍論記文』 1부와 『御義』 5권을 가지고 왔다.

④ 요의 御史中丞 耶律思齊가 又據대사와 智佶대사가 저술한 『安樂伊集』을 간행할 것을 황제에게 청함.

우거대사와 지길대사의 『안락이집』에 대해 敎義의 새로움에 이르러 판에 새겨 유통할 수 있는지를 아뢰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 처음의 草本 중에 誤字를 발견해서 이에 의거해 새로 간행한 것인가 합니다.⁵⁶⁾

⑤ 야율사제가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부쳐 올 章疏는 매매할 것을 주선했다. 토산물 밖에 사소한 것도 있는데 그 바탕을 본받아 높이 취하시어 은밀히 드리우고자 준비하는 것은⁵⁷⁾ 따로 매매하는 쪽으로 주선하고 있으니 특별히 책 구입 대금을 보내는 방편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밝게 살펴 송금에 관한 소식을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⁵⁸⁾

⑥ 『大覺國師碑銘』 당시 北遼의 天佑帝가 대장경과 疏鈔 6,900여 권을 보냄
『大覺國師碑銘』에 의하면 당시 北遼의 天佑帝가 국사의 명성을 듣고 대장경과 여러 종의 疏鈔 6,900여 권을 보내 주었고, 또한 文書·藥物·金·緋緞을 보내 준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燕京의 법사 雲誦와 高昌國의 阿闍梨 尸羅傳底 또한 존경하여 천자께서 내리시는 사령장[策書]과 범복으로써 문안해 왔으며, 요나라에서 온 사신

55) 『大覺國師外集』 卷第8 書 8.

56) 『大覺國師外集』 卷第8 書 8.

57) 몰래 부쳐올 章疏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58) 『大覺國師外集』 卷第8 書 8.

은 으레 뵈기를 청하여 토산물을 바치며 예를 갖추어 절했다. 또한 우리 사신이 요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국사의 안부를 물었다.⁵⁹⁾

위와 같이 의천과 요의 황제, 고승과의 교류 기록을 통하여 요에서 편찬·간행된 문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10-12세기 중국과 동북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란의 불교문화와 그에따른 불교 경전의 출판문화가 고려에 유입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그간 발견된 불교 경전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거란의 출판문화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에 몇몇 탑에서 발견된 거란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거란의 불교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란과 고려간의 출판문화교류에 있어서는 불교 경전의 교류에 초점을 두어 거란에서 간행된 서적이 고려에 유입되어 고려의 출판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몇몇 자료를 통해 고구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란의 출판문화는 건국 초기부터 역대 황제들의 관심과 송과의 교류를 통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입어 기본적인 유교와 불교경전들을 간행하여 배포시켰다. 거란의 역대 황제들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통일을 위하여 불교를 숭상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던 관계로 여러 사찰들이 건립되고 불사가 장려되어 많은 고승과 학승을 배출시켰다.

둘째, 거란에서 불교가 융성해짐에 따라 대장경의 간행과 여러 종류의 불전과 연구서적들도 간행되었던 까닭에 應縣 木塔에서 목판 불경 47권, 豐潤의 天宮寺

59) 『大覺國師外集』 卷第12 碑銘 1.

塔에서 목판 불경 11종, 慶州 白塔에서 『妙法蓮華經』, 陀羅尼經板, 七佛法舍利塔과 그 탑 내에 不空이 번역한 菩提場陀羅尼 등 불교 서적들이 발견되었다.

셋째, 고려와의 관계에서 보면 몇 차례의 대장경과 佛書를 내려 줌으로써 문화 교류의 토대가 되었으며 고려에서는 초조대장경의 보완은 물론 재조대장경을 간행할 때도 교정의 기본자료가 되었다.

넷째, 고려에서 거란 즉, 遼의 불교와 관련 서적의 영향으로 경전들이 翻刻과 重刊된 것으로 거란대장경의 번각본으로 추정되는 1102년 간행의 『藥師經』과 이를 다시 조선시대 번각한 안심사판 등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 『龍龕手鏡』은 현존 판본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요의 독창적인 불교문화 특징을 보여 주고 이후 조선의 15, 16세기 판본들은 羅州版 고려본의 계통을 이으면서 수정과 증보를 하여 독자적인 판본으로 발전시켰다.

다섯째, 대각국사 義天의 노력으로 조성된 敎藏類로서 현존하는 것은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貞元新譯華嚴經疏』이며 그밖에 고려시대 간행된 저본의 기록을 가진 사본류로는 『華嚴經談玄決擇』, 『釋摩訶演論贊玄疏』와 『釋摩訶演論通玄鈔』 등은 비록 원본은 아니나 내용과 간행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는 고려판을 번각한 조선시대 간경도감 판으로 요대의 詮明의 저술로 응현목탑 발견본(권2, 6)과 더불어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경기도박물관 편. 『同과 異』; 遼寧省 神奈川縣 京畿道文物展. 용인: 경기도 박물관, 2002.

金渭顯 外. 『遼史 上·中·下』. 경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_____. 『契丹社會文化史』. 서울: 景仁文化社, 2004.

- 金在滿. 『契丹・高麗關係史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1999.
-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竝に義天の思想及び編纂事業に關する研究. 京都: 便利堂, 1937.
- _____. 『高麗續藏雕造攷』; 圖板 上・下. 京都: 便利堂, 1937.
- 島田正郎. 『遼制之研究』. 東京: 中澤印刷, 1954.
- 禿氏祐祥. 『東洋印刷史研究』; 日本書誌學大系 17. 武藏村山: 青裳堂書店, 1981.
- 白山學會. 『鮮卑・蒙古・契丹・女眞 關係史 論攷』. 서울: 白山資料院, 1999.
- 傅樂煥. 『遼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1984.
- 山西省圖書館 外. 『珍貴古籍名錄圖錄』.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12.
-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主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 森田龍僊. 『釋摩訶衍論之研究』. 山城屋: 文政堂, 1935.
- 서병국. 『거란제국사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 西日本新聞社. 『草原の王朝 契丹』; 美しき3人のプリンセス. 九州: 西日本新聞印刷, 2011.
- 松廣寺 聖寶博物館.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순천: 송광사, 2004.
- 神尾弼春. 『東方文化襍考』. 新京: 滿洲新聞社, 1943.
- 野上俊靜. 『遼金の佛教』. 京都: 平樂寺書店, 1953.
- 愛新覺羅, 烏拉熙春. 『愛新覺羅烏拉熙春女眞契丹學研究』. 京都: 香堂書店, 2009.
- 葉隆禮. 『契丹國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李際寧. 『佛經版本』; 中國版本文化叢書.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장남원 외. 『고려와 북방문화』. 서울: 양사재, 2011.
- 中國國家圖書館, 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三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國家圖書館出版社, 2012.
- 中國國家圖書館, 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二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 中國國家圖書館, 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一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國家圖書館出版社, 2008.
- 천해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경기: 범우, 2012.
- 肖東發. 『插圖本中國圖書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 竺沙雅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 河村孝照 編. 『(新纂)大日本續藏經 8』. 東京: 圖書刊行會, 1975.
- 海印寺 聖寶博物館.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誓願서원. 합천군:
海印寺 聖寶博物館, 2008.
- 黃有福, 陳景富 著, 權五哲 譯. 『韓·中佛教文化交流史』. 서울: 까치, 1995.
- 黃潤華, 史金波 著, 任繼愈 主編. 『少數民族古籍版本』; 中國版本文化叢書. 南
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荒川慎太郎 外. 『契丹[遼]と10~12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 勉誠出版, 2013.

[논문]

- 김영미. “高麗와 遼의 불교 교류.” 『韓國思想史學』 제33호(2009). 109-129.
- _____.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제43호(2002). 47-76.
- 남권희. “刊行本 敎藏의 書誌 分析.”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 요지집』(2013).
59-142.
- 方廣錫. “遼藏版本及 『遼小字藏』 存本.” 『再雕大藏經과 東亞細亞의 大藏經』
(2013). 6-31.
- 안귀숙.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의 영향.” 『梨花史學研究』 제40호(2010).
119-159.
- 吳龍燮.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봉안.”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5-26.